

“동남아도 반했다”...전남 K-푸드 뜨거운 반응

NEWS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프놈펜 현지서 판촉전...김·미역·쌈장 등 36종 선별
고급 이미지 구축·글로벌 수출 시장 확대 등 ‘청신호’

전남의 프리미엄 농수산물인 동남아시아 한류 중심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때로시키며 큰 호응을 얻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북서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이온몰 센썬 시티’에서 지난 13일 열린 ‘전남 케이-푸드(K-Food) 판촉전’에서 해조류와 장류 등 36종의 전남산 제품을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판촉전은 전남도의 동남아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케이-콘텐츠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동남아 시장에서 전남 식품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운영됐다.

행사에는 캄보디아 유통기업 캄코브라

더스(의 킨 삭(Kin Sak) 대표와 정종웅 고문, 언 소파(Un Sopha) 이온캄보디아 이사, 정명규 재캄보디아 한인회장, 송동일 재캄보디아 농산업협회장을 비롯한 현지 경제·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일반 소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에선 전남 대표 수출기업 ㈜흥일식품의 김, 미역, 다시마를 포함해 고추장, 찜장 등 총 36종의 전남산 제품이 소개됐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행사에서 현지 인플루언서 ‘렙(Leng)’과 함께 김밥과 미역국을 직접 만들고 나눠 먹으며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큰 주목을 받았다. 행사장이 위치한 이온몰 센썬 시티는 주말 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로, 중산층과 외국인 거주

자가 집중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전남도는 이 점을 활용해 케이-푸드 고급 이미지 구축과 수출시장 확대를 겨냥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시식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캄보디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수출시장이다. 2024년 전남의 캄보디아 수출액은 약 441만 달러 규모로, 이 중 조미김(66만 달러),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67만 달러) 중심의 식품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물 가공식품, 장류, 전통 주류 등으로 수출 품목이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맛은 청정한 바다와 비옥한 들녘에서 나온다. 판촉전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과 전남의 건강한 맛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식품이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오르도록 글로벌 판촉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i@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3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이온몰 센썬 시티에서 열린 ‘전남 K-푸드 판촉전 in 캄보디아’ 행사에 참석,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 ‘렙(Leng)’과 함께 김밥과 미역국을 직접 만들어 현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선진 의료기술 전파·지원 ‘앞장’

캄보디아 보건부장관과 활성화 회담...의료환경 개선 노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치앙 라 캄보디아 보건부장관, 렘 다라 캄보디아의사회장을 비롯한 고위

급인사,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회담을 했다.

회담은 전남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보건 정책 공유, 상호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의료 취약 지역민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캄보디아와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캄보디아 내 의료환경 개선 및 발

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공보건과 질병예방 협력 사업 추진, 두 지역 보건의료 정책과 경험 공유, 의료인력 교류·보건교육·의료 봉사 활동 등이다.

전남도의사회는 그동안 캄보디아 시엘립·프놈펜(2018년), 뽏삿시(2023년) 의료봉사활동, 응급차량과 소방차량·의료장비 등을 지원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의료 지원, 경북 산불 의료지원

등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운창 의사회장은 “이번 회담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캄보디아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앙 라 보건부장관은 “한국 특히 전남의 의료 발전은 캄보디아가 분만을 위한 모범 사례”라며 “이번 협력관계를 통해 전

남의 선진 의료시스템 등을 접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돼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의사회와 캄보디아 의사회의 보건의료 협력, 의료기술 지원 등 상호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캄보디아와의 귀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이번 협력이 두 나라의 상호 발전과 국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i@

“전남 마른 멸치 호주 입맛 사로 잡는다”

오성수산 20t 수출 선적

전남산 멸치가 호주 수출길에 올라 글로벌시장 공략이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15일 여수 돌산읍의 오성수산 공장에서 마른 멸치 20t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수출 물량은 다시멸치, 볶음멸치, 지리멸치 등 3종이다. 150g 단위 소포장 형태로 가공됐다. 제품은 호주에 있는 전남 해외상설판매장과 한인 마켓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수출을 주도한 오성수산은 여수 돌산읍에 본사를 둔 수산물 전문 제조기업이다. 멸치 어획부터 건조, 가공, 포장, 출고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시스템으로 체계화해 관리하고 있다.

오성수산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그동안 수산물이력제와 식약처 HACCP, 해양수산부 품질인증,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여수시 해누리 인증 등을 획득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JAKIM)과 국제 식품안전 인증인 SQF-2000(3단계)을 취득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그린리



최근 여수 돌산읍의 오성수산 공장에서 전남산 마른 멸치의 호주 수출 선적식이 진행됐다.

스트(식품안전성) 등록 및 호주 생물보안국과 농림부의 수입허가를 받았다.

전남 농수산식품의 2024년 호주 수출액은 1114만 달러로 전년보다 12.4% 늘었다. 올 들어선 4월 현재까지 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제성 오성수산 대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멸치가 미국, 일본, 호주를 넘어 유럽연합(EU)까지 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지역 수산업체의 해외 진출은 전남 수산식품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남 수산식품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전남 해외상설판매장 운영사 ‘마이홈푸드’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판매장은 웨스트라이드와 혼스비 지역 두 곳에서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유통망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해남 산이정원에서 8월까지 ‘썸머 블룸 페스타’
체험·전시·물놀이·생태 프로그램 다채

전남도는 여름 정원의 절정을 알리는 ‘썸머 블룸 페스타’를 해남 산이정원에서 8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썸머 블룸 페스타는 봄철 ‘첫봄 페스타’, ‘금작화 페스타’에 이어 계절 연계형 행사다. 여름꽃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6월에는 사스타데이, 수국, 백합 등 여름철 대표 꽃이 정원 전역에 만개하며 관람객에게 계절의 정취를 선사한다.

특히 산이정원에서만 볼 수 있는 자체 개발 백합 품종은 주요 볼거리로 주목된다. 초여름 개화하는 태산목 역시 고유의 향기와 크기로 여름 분위기를 더한다.

체험형 전시 콘텐츠도 마련됐다. ‘산이정원을 찰하다’는 벽화에 꽃과 곤충 스티커를 색칠해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로, 전 연령층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수동적인 감상에서 벗어나 정원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다.

7~8월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물놀이장과 숲길 트래킹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원에 조성된 워터바운스 놀이터는 여름철 피서형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며, 트래킹 코스는 ‘나비정원’, ‘거미의 숲’ 등 생태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원 탐험대’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의 생태 교육 콘텐츠로 곤충과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관찰하고 직접 체험하도록 운영된다. 산이정원이 보유한 자연교육 기능을 활용한 가족형 프로그램이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산이정원 누리집(www.sanigarde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살아?

이 앱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잇샵

이렇게 사용하세요!

잇샵 사용법

손쉬운 혜택받기

맛집

술집

카페·디저트

해운·부티

방문이벤트

서비스

숙박

자동차

알바

운동·여가

가볼 만한 곳

자연명소

테마파크·체험관광

문화유적

피크닉

아이와함께

캠핑

모두의 쿠폰, 잇샵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